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대불교대학 스승에게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개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 FAX: (0343)470-3116

법공양 페이지

돌아서서 간절히 믿고 놓는데 살길 있어

사업 안돼 문닫을 위기에...

매주 선원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자동차 회사에서 영업을 7년을 하다가 그만두고 무역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있는 돈을 다 까먹고 은행에서 대출도 많이 한 상태에서 이리저리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빚을 갚을 길은 막막하기만 하고, 주인공에 맡겨보고 있지만 마음의 길을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은 한강 다리를 지날 때 이대로 다리를 뛰어 내리고 싶은 마음이 몇번이나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주인공 당신은 할 수 있어' 하고 주인공에 맡겨보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산중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 소년 여럿이서 토끼를 쫓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느라고 산등성이에 모여 있었습니다. 소년들은 그 자리에서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면서 웅성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등성이 아래쪽 골짜기에 토끼 한 마리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 토끼는 소년들이 웅성대는 소리에 지레 겁을 먹고, 가만히 있으면 더 안전한 텐데도 그걸 모르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도망을 쳐도 제대로 방향을 잡았으면 좀 좋았겠습니까. 소년들이 위에 있으니 아래쪽으로 도망을 치든지 옆쪽으로 도망을 쳐야 할 텐데 이 미련한 토끼는 등성이, 죽을 향해 뛰어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토끼만 통통은 뒷다리가 안다리보다 훨씬 길어서 오르막길에 내리막길보다 달리가 더 쉽습니다. 내리막길에서는 앞다리가 짧기 때문에 굴러버리기가 십상이지요. 그래서 오르막길에 숨어 배웠기 때문에 일단 될 일이 있으면 오르막을 향해서 뛰고 보는 것입니다.

위에 있던 소년들은 옹다구나 하고 동등이로 토끼를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실패했기 때문에 토끼는 아래로 미끄러져서 굴러갔습니다. 그중 호미가 당했으면 이젠 아래로 가려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토끼는 당황한 나머지 다시금 위로 뛰어 올라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소리 소리 지르면서 토끼를 내리쳤고, 토끼는 다시금 굴러내려 갔습니다. 이렇게 서너번이나 한 뒤에 토끼는 아이들의 사이를

뚫고 등성이에 올라서더니 등성이를 따라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토끼를 뒤쫓아갔지만 아마 잡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죽으면 산다, 버리면 얻는다는 말을 못 믿는 사람들은 그 토끼와 아주 비슷합니다. 살 길은 앞으로 치달고, 위로 올라가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뒤돌아서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위로 오려는 습, 집착과 욕심이라는 습에 젖은 나머지 돌아설 줄을 모릅니다. 그런 나머지 몽둥이에 얻어맞으면서도 살겠다고 계속 몽둥이 숲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인공에 놓았다고 하는데, 생각으로 들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과거에 남을 못 살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시장에 가보면 모습을 가지고 나 온 대로 사과와 사과대로, 배는 배대로 모아놨죠? 그것이 누가 이렇게 뇌라 저렇게 뇌라 하는 사이 없이 끼리끼리들 모여져 있어요. 뒤섞이는 일이 하나도 없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태어나는 것도, 인연 따라서 모였다 흩어지고, 또 흩어졌다 모이는 것이, 자기가 뿌려놓은 2세들이 전부 한 염주줄에 꿰어져 있는 염주알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자기 하나라도 그 도리를 안다면, 염주를 하나 들어도 염주알이 전부 달려 올라오듯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에서 한 명이라도 이 도리를 알아서 증득한다면 그냥 한마음으로 들리는 거죠. 그렇게 꿰놓는다면 다 들리는 겁니다.

들고 있다, 놓고 간다할 게 없어요
 마치 실재하는 양 생각하니
 그 생각에 걸려 고생을 하는거죠

점을 알아야 하고, 또 내가 그렇게 못살게 만든 장본인이니 내 탓이고, 지금 내가 못살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으니까 부지런히 수행을 해서 그 모두를 녹여야만 벗어날 수 있음을 알아 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생기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걸 간절하게 믿고 놓아야 없애집니다. 다. 그리고 조금도 예우리가 없고 조금도 허탕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생각을 잘하면, 우리는 중생이 아니라, 무한하고 영원한 화와 생명을 지닌 부처인 것입니다.

범인과 성현이 하는 결혼차이

큰스님의 법문을 모은 서적을 서너 권 구하여 읽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깨치기 전에 결혼하지 말 것이며, 결혼했으면 깨치기 전에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신 법문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한국의 성지자 중에서도 결혼을 하고 자손도 많은 분들이 계신 것으로 하는데, 범인이 하는 결혼과 성현이 하는 결혼에는 무슨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지요?

다. 꿰어 놓지 않고 전부 흩어져 있다면 다 들리지 않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또, 마음공부는 결혼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걸 떠나서 해야 하는 거죠. 출가를 한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출가를 해야 지킴만 출가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출가를 하는 것은 우선 가정을 버려야 하고, 부모 형제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 하고, 안에 들어와서 나 자신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철 살다 가는 건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오는 건 어디서 왔어요. 하지만 살아 나온 자리가 없기 때문에 죽어갈 자리도 없어요. 상사후회를 몽땅 치워 버렸거든요. 내 몸통이가 공에서 없는데 그 자리에서 오는 건 어디서 왔어요. 그 자리에서 가는 건 또 어디로 갈 것입니까. 그 뜻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공부하는 데 어떤 차이가 있는나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열심히 진실하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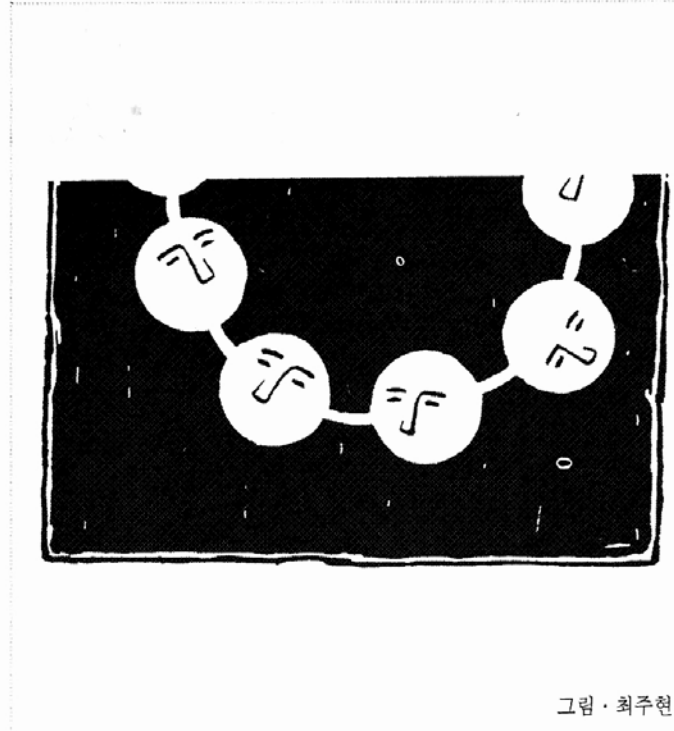


그림 · 최추현

인연을 내려놓으면 얽히고설킨 문제가 적으니 공부하기가 좀 낫죠.

그래서 옛말에 "일찍이 불자가 되었다면 먼저 참나를 찾은 것이요, 이미 결혼을 했다면 거기에 매이지 말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썽꾸러기 학생때문에 고민

저는 지금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어떤 학생 때문에 고민 중입니다. 이 학생은 말썽쟁이로 소문난 아이인데 학년초에는 좀 마음을 잡는 듯 하더니 요즘에 와서는 한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에도 전혀 마음이 떠나서 이유도 없이 전학을 가겠다고 하지를 않나, 아예 상습적으로 가출을 하여 그의 부모님과 저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학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주어야 할 지 고민입니다. 어떠한 말로 간곡하게 이야기해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행동이 자꾸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출을 하여 얼굴조차 제대로 볼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냥 기

다리자니 스승으로서의 도리가 아닌 듯 하고... 그 아이 인생을 생각하면서 차분하게 믿고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의 진실이 전달되지 않는 것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어린 학생의 행동에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하면 좋을지, 어떻게 그 아이를 도와줄 수 있을지, 저의 더 깊은 속고 필요가 더욱 진중하게 느껴져야겠지만,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 자신이 어떻게 해야 그 아이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지 알고 싶습니다.

선생님과 제자라는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미 서로 가설이 돼 있습니다. 그 인연은 전기 가설과 같은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관(觀)하면 학생에게까지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마음의 그 깊은 뜻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사람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문제가 그 마음에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너무나 극악한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게 더욱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가 따로 없다는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고도 식구들을 관찰 때 끝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바르게 자라나길 바라며, 그분들의 주인공과 내 주인공이 틀어놓는 거지 그것이 안 되겠느냐.' 하고 그냥 간절히 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80%, 90%가 좋아진다면 그 얼마나 좋은 일이었습니까? 여러분의 기본도 좋은 뿐 아니라 그런 자식을 둔 부모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한마음이 된다면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한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세심하게 마음을 내시는 선생님의 마음이 참 대견스럽군요. 마음과 마음은 언제나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꼭 그렇게, '저 아이에게 좋지 않은 일이 안 생기게 하는 것도 틀어놓는 주인공, 당신만이 할 수 있다.' 고 지극하게 관찰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절을 절이라고 하는 이유

저는 인터넷을 통해 스님의 살법을 들으며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길을 묻는 이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스님, 혹 절은 절로 되어서 절이라고 하는지요? 요즘은 절을 할 때 저절로 합장이 되고 앞을 두루 살피기도 하고 절도 저절로 하는 것을 봅니다. 주인공이 하는 일이라 생각되지만 공부하는 사람이니 스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절을 하는 것은, 뜻으로 본다면 마음을 한데 모으는 뜻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보이는 세상과 안 보이는 세상이 한데 합쳐서, 정신세계와 물질세계가 한데 합쳐서 작용을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절을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한테만 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도 형상이요, 여러분도 형상이요, 그래서 형상이 형상한테 절을 한다면 그것은 꼭 허수아비가 노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한 번 절 가습 길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부처님 몸과 내 몸이 틀어놓아집니다. 그 합치에서는 두 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한테 절을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스스로 돌아나게 절을 할 때, 그것이 바로 돌아오는 뜻입니다. 내가 비록 나무를 하나 세워 놓고 절을 했을지언정 어찌 나무에 절을 했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내 마음으로부터 그 자리에 절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인공! 하면 전체가 한데 결합된 걸 말한다 그거죠? 그것이 무슨 말 이냐면, 나를 포함해서 전부 들어가 있는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역의 불을

끼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스님)는 6월 장마절을 맞아 강원도 산북파해지역의 산사태 및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뜰짜파종을 6월 6일(화), 6월 18일(일) 2회에 걸쳐 강원도 일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뜰짜파종에 동참해 주신 많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분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厚意를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께도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길 빌어드립니다.

	1차	2차
일시	6월 6일(화)	6월 18일(일)
장소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	강릉시 사천면 노동리
자원봉사 동정인원	64명	75명
참가단체 (개인포함)	대불련·불자련 자원봉사단·흥제포교원 방생선원·사천왕사·길동관음의 집·원당사 기타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	
성금전달 접수처	강원도청	
성금 전달내역	○ 불교자원봉사연합회 : 500만원 ○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 100만원 ○ 원당사 : 쌀 100kg, 생필품 2박스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임직원 일동 합장
 ☎ 02)723-6258

金山 큰스님 서화 전시회

대구 대덕 문화의 전당에서 서화, 도자기 작품 전시회를 성황리에 마쳐 범인세계 경호원 연맹 모금 봉사사업이 되었다.

- ◆ 금산스님 뒷걸음 ◆
- 1935 일본 후쿠오카 미야모리 건대역 출생
 - 1956 한국 불교신문 사설 기자 겸 편집위원
 - 1962 고대대학교 불교학과 대학원 석사
 - 1967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회 부총장
 - 1968 신원지 지음책 1권 발간
 - 1972 한·일 불교미술 교류전 대표인사(사찰대신)
 - 1973 부산광역시 불교진흥위원회(대표)
 - 1975 서울 관악사 불교진흥위원회(대표)
 - 1978 마산(동서)불교진흥위원회(대표)
 - 1981 마산(동서)불교진흥위원회(대표)
 - 1987 사단법인 불교미술진흥위원회(대표)
 - 1988 사단법인 한국미술진흥위원회(대표)
 - 1991 이웃돕기 자선전(서울(옛법학사-가인(전)인사)
 - 1993 경북 불교신문 편집위원 겸 기자
 - 1993 부산 예술회관 - 동대구 관악사(가인(전)인사)
 - 1994 순교 기념 주간 출판위원 - 순주
 - 1995 광주 전마 공예 전시회(대표)
 - 1996 제1회 전국 불교미술 전시회(대표)
 - 1997 대한 불교 미술 진흥위원회(대표)
 - 1998 불교미술진흥위원회(대표)
 - 1998 경기도 공예사 진흥위원회(대표)
 - 1999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 미술 진흥위원회(대표)
 - 대한 불교 미술 진흥 위원회
 - 대한 불교 미술 진흥 위원회
 - 세계 조형사 신문화 미술 진흥 사업



범인 세계 경호 연맹 대구광역시 본부
 T. (053)651-7707 F. (053)626-4747
한국불교 범종단 최고 원로회 원의청
 T. (대) 0333-656-8951
 * 이번 전시회에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한국불교 범종단 최고 원로 회의 대표 의장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이 민백 배상

달마도사 이르시되
 내가 네 마음을 이미 편케 하였도다.
 이로써
 석가세존의 불교가
 용수보살의 보살교를 거쳐
 달마조사의 조사교가 되니
 시절인연에 따른 변화
 그 자체라네
 서문에서.

보덕현호 시집

살마를 보라!

A5신 176쪽 값 5,400원

* 구입안내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망상시집

- 정화의 빛 - 값 5,400원
- 고향의 숨결 - 값 4,500원
- 해 탈 - 값 5,000원
- 마음의 창 - 값 7,200원

총발 연기문 금남문 석교리 510
 (우) 339-830
 Tel: (0415) 867-4000
 Fax: (0415) 867-4001

도서 정화사

선암사 여름 수련회 수련생 모집

귀의 삼보하옵고
 1300년을 이어온 청정 도량 선암사에서
 3박 4일간의 출가수련으로 고요하고 맑은
 처음 그 마음을 찾아서
 그 마음 바다에 환승이 연꽃피우소서

선암사 일반인 수련회 일정		
기간	연령	인원
1차 7/15 ~ 7/18	20~60	80명
2차 8/5 ~ 8/8	20~60	80명
3차 8/12 ~ 8/15	20~60	80명

속습 어린이 수련회 일정		
기간	연령	인원
7/22 ~ 7/24	9~13	100명

▶장 소: 선암사 관음전
 ▶참가자격: 불교신자, 무종교자
 ▶수련회비: 일반4만원, 어린이 1만 5천원
 ▶준비물: 필기구, 세면도구, 우산, 운동화 지참
 ▶도착시간: 오후 2시까지
 ▶접 수: 3일전 접수 마감 (전화접수가능)
 ▶전화접수: (051)803-7573, 803-7522
 ▶선암사: 부산은행: 054-12-084085-0
 포교부 국민은행: 116-01-0396-848(선암사)
 ▶주 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3동 628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선암사
 주지 원 타 합장